

## 2003년 국제 신춘 집회 표어

한 새 사람의 생활은  
예수의 생활과 같아야 한다.

우리는 반드시 옛 사람의 사회 생활을 벗고  
새 사람의 사회 생활을 입어야 한다.

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열쇠는  
우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이다.

우리는 범사에 그리스도 안으로 자랄수록  
더욱더 새 사람을 입는다.

.....  
**전체 주제: 한 새 사람의 생활**

**메시지 1**

**실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배움**

성경: 엡2:15, 4:17-21, 골3:10-11

**I. ‘사람’은 성경에 있는 중대한 단어이다—창1:26, 시8:4-6**

- A.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에게 있으며, 하나님의 사상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고,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에게 있다.
- B.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도 사람이요,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도 사람이요, 하나님의 원수를 패배시키는 것도 사람이요, 하나님의 왕국을 인류에게 가져오는 것도 사람이다.
- C. 사람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수단이요, 하나님의 움직이심의 수단이요, 하나님의 행정의 수단이다—겔1:26, 5, 10.
- D.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는 사람을 얻기를 갈망하시는데, 이는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역사해 넣으심으로 그분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—엡2:15, 3:16-17상.
- E. 하나님은 사람을 원하시며, 옛창조 안에서 그분이 창조하신 것은 표상과 예표이지 참 사람이 아니었다. 참 사람—한 새 사람—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창조하신 사람이다—창1:26, 엡2:15.

**II. 한 새 사람은 단체적이며 우주적인 사람이다—4:24, 골3:10-11.**

- A. 한 새 사람은 단체적인 하나님-사람이다.
  - 1. 첫 번째 하나님-사람, 곧 하나님의 맏아들이 이 단체적인 하나님-사람—새 사람—의 머리이다—롬8:29, 엡4:15.
  - 2. 많은 하나님-사람들, 곧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이 단체적인 하나님-사람—새 사람—의 몸이다—16, 24절.
- B.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들인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와 하나로서 한 새 사람이 된다.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한 새 사람의 일부이다.

**III. 한 새 사람의 생활은 예수의 생활과 똑같아야 한다.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신 방식이 새 사람이 오늘 살아야 하는 방식이다—21절.**

- A. 우리는 더이상 ‘이방인들이 그들의 생각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해서는’ 안 된다—17절.
  - 1. 타락한 사람들인 이방인들은 생각하는 데에서 허망하게 되었다—롬1:21.

2. 이방인들은 그들의 생각의 허망한 것으로 행하여 그들의 허망한 사고에 의해 통제되고 조정된다. 그들이 자신들의 타락한 생각에 따라 하는 것은 다 허망하고, 실재가 없는 것이다.
  3. 하나님의 생명(엡4:18)을 가진 구원받은 사람도 생각의 허망한 것으로 행할 가능성이 있다.
- B. 우리는 예수의 생활과 부합하는 삶, 즉 예수 안에 있는 실재에 따른 삶을 살아야 한다—21절.
1. 한 새 사람의 삶은 반드시 예수 안에 있는 실재의 삶이어야 한다.
    - a. 예수 안에 있는 실재는 사복음서에 기록된 것과 같은 예수의 삶의 참된 상황이다.
    - b.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, 하나님과 함께, 하나님을 위해 하신 그러한 삶을 사셨다.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활 안에 계셨고, 그분은 하나님과 하나이셨다.
  2. 새 사람은 단체적인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의해 실제화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—24절.
    - a. 우리의 생활의 표준은 반드시 예수 안에 있는 실재, 즉 예수께서 땅에 계셨을 때 살아내신 실재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. 따라서, 예수의 삶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.
    - b.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실재에 따라 산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 실재의 삶, 즉 빛을 받으며 하나님을 표현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—마11:29.

#### IV. 한 새 사람의 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워야 한다—엡4:20.

- A.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일 뿐 아니라 본이시다. 우리는 우리의 천연적인 생활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분에 의해 그분의 본을 따라 그분에게서 배운다—마11:29, 골3:4.
- B. 사복음서는 하나님께서 갈망하시는 삶의 본, 곧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 있고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삶의 틀을 우리에게 보여준다.
  1. 주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생활하시는 동안 본, 틀, 모형을 세우셨다.
  2. 복음서에 계시된 본을 세우신 후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 안으로 들어가시어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(고전15:45하). 부활 안에서 그분은 우리 안으로 오시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.
- C. 구원된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지는 것이다—고전1:30, 롬 6:3, 갈3:27.
  1.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그리스도 안에 놓여지는 것, 곧 틀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지는 것이다.
  2. 하나님 편에서는 그분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넣으셨고,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그분 안으로 넣어짐으로 그리스도를 배운다.
- D.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은 그리스도의 본 안으로 넣어져 형태를 이루는 것, 즉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이다—엡4:20, 롬8:29.